

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, 산불 피해 성금 2천만원 전달

김용묵 기자 kimym3398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5.04.24 19:52



[경상매일신문=김용묵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2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, 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2천만원을 전

이번 성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했으며,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
와 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촌지역 개발, 재해예방 과 복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

서선희 본부장은 “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.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
참하고,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김학홍 행정부지사는 “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. 기부해주신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소
다.

